논문 07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 분석

차 성 현[1] · 민 병 철[2] · 엄문영[3]

요 약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고등학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423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여부에 따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원 진학 이상의 부모 교육포부 수준, 대학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라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포부 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대학 졸업자에 비해 3.6배 정도,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3배 정도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전공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은 이공계열 졸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학력, 가구소득, 실업률, 학점은 대학원 진학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7~8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대학교육은 보편화 단계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보편화는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학력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청년 실업을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실업률은 2.85%인 반면, 25-29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실업률은 6.55%로 이보다 2.3배 정도 높다.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대학원 재적 학생수 변화를 보면, 2005년 282,225명에서 2011년 329,933명으로 1.16배 증가하였다. 동일 기간 석사과정 학생수는 2005년에 비해 1.13배, 박사과정 학생수는 1.37배 정도 증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1). 또한 201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8% 정도가

1)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3)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 2012).[4)]

대학원 진학자 증가하는 데에는 BK21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에 따른 취업난이 모종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청년층의 취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을 유예하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진미석, 2006).

그러나, 대학졸업자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에서 졸업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별, 진학동기, 부모 교육수준, 학자금 대출 여부 등의 개인 및 가정 특성, 대학 소재지, 대학 유형, 전공계열 등의 대학특성, 그리고 학점, 구직활동, 근로경험, 대학생활만족도 등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변인들 가운데 일부만을 연구의 맥락에 따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이영민, 임정연, 2011).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실제 대학원 진학자가 아닌 대학졸업 예정자 혹은 대학원 진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오창환, 정철영, 200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경제적 상황 변수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른 변인을 통제했을 때 졸업 당시의 실업률이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에 미치는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자료 고등학교 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1. 대학원 진학 결정 관련 이론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investment model)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교육 투자로 인한 기대 수익(expected returns on educational investment)과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평가하여 기회비용 이상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할 것인가 혹은 대학원에 진학할 것인가의 선택은 대학원 진학과 졸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이 동일 기간의 취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소득보다 큰 경우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Becker, 1975; Blaug, 1976; Mincer, 1970).

4) 2012년 전체 대학졸업자(2011년 8월과 2012년 2월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은 5% 정도이며,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졸업자를 제외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률임.

한편, 대학졸업 후 취업 혹은 대학원 진학 결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일자리가 부족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경제 침체기에는 대학원 진학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대학원 진학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다. 반면에 경제침체기에는 대학원 수업료는 오를 것이며 장학금을 받을 기회도 낮아져 대학원 교육 비용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 능력 그리고 대학원 교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정도가 대학원 진학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기 변동에 대한 대학 전공 및 계열의 안정성이 대학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자연 계열 전공의 일자리 수나 임금 수준은 공학 계열 전공보다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ide & Waehrer, 1998; Bedard & Herman, 2008).

그런가 하면, 대학원 진학 선택을 위치재(positional goods) 혹은 비교 우위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위치재란 소비 가치가 상대방의 소비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좋은 직업, 교육서비스,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치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Marginson, 2006). 이 관점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 선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사회적 진출을 꾀하기 보다는 석사학위, 박사학위라는 또 하나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상대보다 우위 즉,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려는 욕구로부터 발현된 행위라는 것이다(Brighous & Swift, 2006; Carlsson, Johansson-Stenman, & Martinsson, 2007). 대학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과거 고등학교 졸업자가 하던 일을 대학 졸업자가 그리고 대학 졸업자가 하던 일을 석사졸업자가 대신하는 일자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미 많은 사람들이 소비한 학사학위는 그 상대적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휘발성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유발하기 위한 더 높은 학력에 대한 수요로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대학원 진학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는 대학 진학에 대한 결정요인, 효과(또는 투자수익률), 만족도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Bedard & Herman, 2008; Dellas & Koubi, 2003). 본 연구에서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탐색하고 있는 실업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상황이 대학원 진학에 주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물론, 경제적 상황이 일반 및 전문대학원 진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몇 기술적 보고서나 논평 수준의 글들은 있지만, 계량통계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Bedard & Herman, 2008). 이영민과 임정연(2011)은 실업률을 대학원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정요인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이들의 연구는 대졸자의 대학원 선택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변인, 가족변인, 대학변인, 대학생활변인 등으로 나누어 하위 세부변인들을 제시하였다. <표 1>은 이영민과 임정연(2011) 연구에 포함된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에 졸업 당시의 실업률이라는 경제적 상황을 포함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1〉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구분	세부 변인	구분	세부변인
개인변인	성(남성, 여성)	대학변인	대학의 질적 수준
	연령		전공 계열
	구직 능력		
가족변인	부모교육 수준		학점
	아버지의 직업 및 소득수준		재학 중 근로경험
	양친유무		
	가족구조	경제 변인	실업률

출처: 이영민, 임정연(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개인 변인 중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보면, 이영민과 임정연(2011)의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이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대학원 진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오창환, 정철영, 2010; Bedard & Herman, 2008; Perna, 2004). 연령 및 구직 능력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구직능력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대안적 수단으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형만, 2002).

가족변인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가장 크게 논의되고 있다. Mullen, Goyette, & Soares(2003)는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및 대학의 성취수준과 관련을 갖지만,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는 부모의 학력은 그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 구체적으로 MBA 프로그램이나 석사과정 입학은 부모 학력이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박사 과정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 학력이 높은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학원 진학에 있어 부모 학력은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효과보다는 학생의 학부대학 특성, 성적, 교육기대, 취업경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영민과 임정연(2011), 오창환과 정철영(2010), 채창균(2007) 등은 아버지의 직업과 소득, 양친유무, 가족구조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고, 양친이 존재하며, 가족 내에서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이 있는 대졸자의 경우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의 학점, 전공계열, 학사과정을 마친 대학의 질적 수준 등도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dard & Herman(2008)은 학부과정의 학점, 학부전공 등을 주요한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으로 파악하였는데, 남·여학생 모두 학부과정 학점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률이 높으며, 물리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수학전공이 학부과정 후 대학원으로 진학률이 높은 전공으로 나타났다. 학부과정의 학점이 대학원 진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이유는 능력이 대학원 진학결과 나타나는 투자대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이다. 또한, 대학의 서열이 분명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의 질적 수준도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선행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오창환, 정철영, 2010; 이영민, 임정연, 2011). 재학 중 근로경험은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영민, 임정연, 2011).

마지막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주요 결정요인으로 탐색하고 있는 경제 변인이 있을 수 있다. Bedard & Herman(2008)은 실업률을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으로 파악하면서,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과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보수구조와 개인의 기술, 전공 분야 등을 통해 경제 상황이 대학원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는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상급 단계의 학위보유자들(예, 박사학위 취득자)이 보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둘째는 경제 상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 시에 각각 각광을 받는 기술과 학문 분야가 달라진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다. 연구를 통해 이들은 성별, 대학원의 유형(석사, 박사, 전문 과정 등)과 실업률을 관련지어 분석하였는데, 남학생의 경우 실업률과 박사과정 진학은 같은 방향으로 즉, 실업률이 높은 경우 남학생의 박사과정 진학률은 높아지고, 석사과정 진학은 실업률이 높은 경우 오히려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전문과정, 박사과정 모두 진학률과 실업률이 관련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dard and Herman, 2008).

Ⅲ. 분석 대상 및 변수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부터 수행중인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자료 중 고등학교 코호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2004년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과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0명 등 총 6,000명을 표집한 후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다. 이 중 현실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조사 대상이 2004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고등학교 코호트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코호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3.5년(7학기)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코호트 중 최초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2008년 2학기에 발생하였고, 6차년도(2009년)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8차년도 조사결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사례 중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사례는 2008년 2학기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다. 다만, 4차년도(2007년)부터 조사된 신규패널 중 포함된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생 206명 중 일부가 해당기간 중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전자와 전반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판단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더불어 7차년도(2010년)부터 조사된 대학 졸업생인 보정패널의 경우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된 주요 변수라고 판단되는 대학 학점과 전공계열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분석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코호트 4,000명 중 2011년 2월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519명이었다. 대학졸업여부의 판단은 매년 조사에서 조사시점의 재학상태(7차년도의 경우, F7Y01001)와 현재 학력(F7Y02001), 대학졸업시기(F7Y02002)을 조합해 판단하였다. 재학상태가 최소 3년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이고 최근 학력 상태가 4~6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며 졸업 시점이 2008년 8월 이후라고 반복적으로 응답한 사례만을 분석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만약 졸업시점에 대한 응답값이 매년 조사마다 달라지는 등 응답 결과가 신뢰롭지 않을 때 그 사례는 제외하였다. 519명 중에는 예체능 계열 학과를 졸업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학원 진학하지 않는 경우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보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계열과의 비교가 어려워 분석사례에서 제외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분석사례는 423명이었다.

분석 사례 423명의 졸업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8월 졸업한 경우가 2명(.5%), 2009년 2월 졸업한 경우가 155명(36.6%), 2009년 8월 졸업한 경우가 13명(3.1%), 2010년 2월 졸업한 경우가 111명(26.2%), 2010년 8월 졸업한 경우가 27명(6.4%), 2011년 2월 졸업한 경우가 115명(27.2%)이었다. 이 중 대학원에 진학한 사례는 423명의 12.8%인 54명이었다. 이를 졸업시점과 대학원 진학여부별로 정리해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졸업시점에 따른 대학원 진학자와 미진학자 분포

졸업시점	대학원 진학	미진학	전체
2008년 8월	1 (50.0)	1 (50.0)	2
2009년 2월	16 (10.3)	139 (89.7)	155
2009년 8월	4 (30.8)	9 (69.2)	13
2010년 2월	15 (13.5)	96 (86.5)	111
2010년 8월	4 (14.8)	23 (85.2)	27
2010년 2월	14 (12.2)	101 (87.8)	115
계	54 (12.8)	369 (87.2)	423

2. 변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대학원 진학여부이다. 이는 매년 조사에서 묻고 있는 재학상태(7차년도의 경우, F7Y01001)에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변환해 사용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대학원 진학포부, 대학의 설립유형, 소재지, 전공, 구직실패경험, 장학금대출여부, 졸업학점, 졸업 당시 실업률을 사용하였다.

우선 성별은 학생의 성별은 조사한 변수(GENDER)를 남자가 1의 값을 갖도록 더미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력은 1차년도 조사에서 가족구성원의 학력을 묻는 문항(BYH01008 등)에서 부학력과 모학력의 교육수준을 추출한 후, 이를 교육연한으로 변환하고, 부학력과 모학력 중 높은 값을 선택했다. 부모학력을 교육연한으로 변환하는 데에는 변환 결과, '① 미취학'과

‘② 무학’의 경우에는 0년으로, ‘③ 초등학교 (졸업)’은 6년, ‘④ 중학교 (졸업)’은 9년, ‘⑤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⑥ 2~3년제 대학 (졸업)’은 14.5년, ‘⑦ 4년제 대학 (졸업)’은 16년, ‘⑧ 대학원(석사)’는 18년, ‘⑨ 대학원(박사)’ 21년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가구소득은 1차년도 문항 중 지난 1년간 귀댁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에서 응답하도록 한 문항(BYH20001)의 응답값을 사용하였는데, 자연로그로 변환하였고, 0만원으로 응답한 경우는 최소값인 50만원으로 바꾸어 변환에 사용하였다. 대학원 진학포부는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포부 수준을 질문한 문항(BYH05001)의 응답값을 변환해 사용하였다. 부모의 자녀교육 희망수준이 대학 이하인 경우 0, 대학원 석사나 박사인 경우 1의 값을 갖도록 변환해 사용하였다.

대학의 배경과 관련해서 사용한 변수는 설립유형, 소재지, 전공 등이다. 이중 설립유형과 소재지는 최종으로 졸업한 대학의 대학명 코드(7차년도의 경우 F7Y01003C)를 통해 산출된 값을 사용하였다. 설립유형은 국공립대학이 1, 사립대학이 0의 값을 갖도록 더미 코딩하였고, 소재지는 졸업한 대학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1, 그 외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전공은 대학 재학 중 최종으로 응답한 학과 또는 전공명 코드(F7Y01005C)를 토대로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으로 구분하였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그리고 교육계열 중 인문계학과들은 인문사회계열로 구분하였으며,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 그리고 교육계열 중 자연계교육과 공학계교육 전공은 이공계열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인문사회계열은 1의 값을, 이공계열은 0의 값을 갖도록 변환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구직실패경험과 학자금 대출, 졸업학점, 졸업당시 실업률 등의 변수 사용하였다. 구직실패경험은 해당 사례가 대학 재학 중 구직활동경험여부(7차년도의 경우, F7Y03001)과 취업실패경험(F7Y03004)을 조합해 사용하였는데, 구직활동은 했으나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경우(F7Y03001=1, F7Y03004=1)를 1로,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거나(F7Y03001=2),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F7Y03001=1, F7Y03004=2) 0으로 코딩하였다. 학자금 대출 여부는 해당 사례가 대학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값(F7Y02080)을 변환해 대출을 받은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졸업학점은 학교별로 만점이 달라, 졸업 평점(F7Y02084)을 만점(F7Y02085)로 나눈 후 100을 곱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당시 실업률은 졸업시점 이전 두 분기(2008년 졸업의 경우 2008년 1/4분기와 2/4분기)의 만 20~29세 실업률을 평균해 사용하였다.

변수의 구성과 변수의 기술통계값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변수처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학원 진학	진학=1, 미진학=0	423	.12	.33	.00	1.00
성별	남=1, 여=0	423	.24	.43	.00	1.00
부모학력	교육연한으로 변환	423	.83	.38	.00	1.00
가구소득	만원단위에서 자연로그	415	12.84	2.85	.00	21.00
대학원 진학포부	대학원 석사 이상=1, 대학 이하=0	413	5.59	.56	3.91	7.50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사립=0	420	.27	.44	.00	1.00
대학소재지	수도권=1, 비수도권=0	421	.33	.47	.00	1.00
대학전공	인문사회계열=1, 이공계열=0	423	.52	.50	.00	1.00
구직실패경험	실패=1. 성공/미시도=0	299	.54	.50	.00	1.00
학자금대출	대출=1, 미대출=0	422	.32	.47	.00	1.00
졸업학점	평점/만점*100 (100점 만점으로 변환)	377	81.33	9.87	4.06	100.00
졸업 당시 실업률(%)	졸업 직전 두 분기의 만 20~29세 실업률 평균	423	6.59	.71	5.75	8.10

3. 분석 모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이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대학원 진학 여부별로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독립변수의 차이가 대학원 진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구직실패경험과 학자금대출여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생의 배경에 따라 모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성별, 대학전공, 소재지별로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모형을 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ln\left(\frac{p_i(Y_i=1)}{1-p_i(Y_i=1)}\right)=\beta_0+\beta_1 F_i+\beta_2 S_i+\beta_3 X_i+\beta_4 E_i$$

Y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여부
F는 가정배경 및 학생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성별, 부모학력, 가구소득, 진학포부)
S는 대학교 경험 및 특성을 나타내는 벡터(설립유형, 소재지, 전공, 학점 등)
E는 졸업 당시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벡터(졸업 당시 실업률)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1. 대학원 진학자와 미진학자의 특성 차이

대학원 진학자와 미진학자의 특성을 비교해 보기 위해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학자 중 남자가 더 많았으며, 부모의 교육포부가 대학원 이상이거나, 수도권 대학 혹은 이공계열 전공을 졸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모학력이나 가구소득, 졸업한 대학의 설립유형, 구직실패경험여부, 학자금대출여부, 졸업학점, 졸업당시 실업률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4〉 대학원 진학자와 미진학자의 일반적 특성 차이

	진학			미진학			t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1)	54	.39	.49	369	.22	.41	2.41*
부모학력 (교육연한)	53	13.36	3.42	362	12.77	2.75	1.19
가구소득	53	5.79	.49	360	5.56	.56	2.89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53	.58	.50	363	.26	.44	4.48***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53	.32	.47	367	.26	.44	.91
대학소재지 (수도권=1)	53	.53	.50	368	.30	.46	3.09**
대학전공 (인문사회=1)	54	.22	.42	369	.57	.50	-5.54***
구직실패경험 (실패=1)	20	.35	.49	279	.55	.50	-1.75
학자금대출 (대출=1)	54	.30	.46	368	.32	.47	-.40
졸업학점 (100점 만점)	51	82.24	13.84	326	81.19	9.12	.71
졸업 당시 실업률(%)	54	6.72	.73	369	6.57	.71	1.41

*p<.05, **p<.01, ***p<.001

성별에 따른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가구소득이 높고,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에 진학시키겠다는 포부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여학생의 경우, 다른 변수들은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가구소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에 따른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 차이

	남					여				
	진학		미진학		t	진학		미진학		t
	N	M(SD)	N	M(SD)		N	M(SD)	N	M(SD)	
성별 (남=1)	21	-	81	-		33	-	288	-	
부모학력 (교육연한)	21	13.12 (3.38)	81	12.75 (3.29)	.44	32	13.52 (3.49)	281	12.78 (2.58)	1.47
가구소득	21	5.87 (.47)	81	5.47 (.58)	3.37**	32	5.74 (.51)	279	5.59 (.55)	1.63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21	.76 (.44)	81	.27 (.45)	4.56***	32	.47 (.51)	282	.26 (.44)	2.52*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21	.38 (.50)	80	.35 (.48)	.26	32	.28 (.46)	287	.24 (.43)	.52
대학소재지 (수도권=1)	21	.48 (.51)	81	.11 (.32)	4.10***	32	.56 (.50)	287	.36 (.48)	2.22*
대학전공 (인문사회=1)	21	.05 (.22)	81	.32 (.47)	-2.59*	33	.33 (.48)	288	.64 (.48)	-3.47**
구직실패경험 (실패=1)	6	.17 (.41)	40	.33 (.47)	-.77	14	.43 (.51)	239	.59 (.49)	-1.12
학자금대출 (대출=1)	21	.14 (.36)	81	.22 (.42)	-.87	33	.39 (.50)	287	.35 (.48)	.46
졸업학점 (100점 만점)	19	81.17 (8.14)	69	77.99 (10.61)	1.41	32	82.88 (16.41)	257	82.05 (8.50)	.46
졸업 당시 실업률(%)	21	6.74 (.59)	81	6.56 (.47)	1.29	33	6.70 (.81)	288	6.57 (.76)	.88

*p<.05, **p<.01, ***p<.001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문사회계열과 이공계열에 따라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 차이를 각각 살펴보았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진학자가 부모학력 및 소득수준이 높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았으며, 구직실패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열 졸업자의 경우는 대학원 진학자가 가구소득이 높고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와 동일하였다. 반면에 부모학력이나 구직실패경험여부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대학원에 진학시키겠다는 포부가 진학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전공계열별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 차이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진학		미진학		t	진학		미진학		t
	N	M(SD)	N	M(SD)		N	M(SD)	N	M(SD)	
성별 (남=1)	12	.08 (.29)	210	.12 (.33)	-.42	42	.48 (.51)	159	.35 (.48)	1.50
부모학력 (교육연한)	12	14.50 (3.75)	206	12.64 (2.63)	2.33*	41	13.02 (3.29)	156	12.96 (2.90)	.13
가구소득	12	5.94 (.36)	202	5.57 (.54)	2.36*	41	5.75 (.52)	158	5.55 (.59)	1.98*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12	.50 (.52)	205	.29 (.45)	1.56	41	.61 (.49)	158	.23 (.42)	4.54***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11	.09 (.30)	209	.19 (.39)	-1.01	42	.38 (.49)	158	.36 (.48)	.24
대학소재지 (수도권=1)	11	.73 (.47)	209	.34 (.47)	2.64**	42	.48 (.51)	159	.25 (.44)	2.63*
대학전공 (인문사회=1)	12	-	210	-		42	-	159	-	
구직실패경험 (실패=1)	6	.17 (.41)	163	.61 (.49)	-2.61*	14	.43 (.51)	116	.46 (.50)	-.20
학자금대출 (대출=1)	12	.33 (.49)	209	.31 (.46)	.16	42	.29 (.46)	159	.34 (.48)	-.66
졸업학점 (100점 만점)	11	82.09 (10.21)	179	81.92 (8.60)	.06	40	82.29 (14.79)	147	80.30 (9.67)	1.01
졸업 당시 실업률(%)	12	6.91 (.83)	210	6.61 (.79)	1.25	42	6.66 (.69)	159	6.52 (.58)	1.41

*p<.05, **p<.01, ***p<.001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이 다른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은 남자인 경우가 많았으며,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에 진학시키겠다고 희망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공계열을 전공하거나, 구직실패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성별이나, 구직실패경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진학자의 대학원 진학포부가 높았으며, 이공계 학과를 전공한 경우가 많았다. 특이한 것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중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국공립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많았다.

〈표 7〉 대학 소재지별 대학원 진학자의 특성 차이

	수도권 대학					비수도권 대학				
	진학		미진학		t	진학		미진학		t
	N	M(SD)	N	M(SD)		N	M(SD)	N	M(SD)	
성별 (남=1)	28	.36 (.49)	111	.08 (.27)	2.88**	25	.44 (.51)	257	.28 (.45)	1.52
부모학력 (교육연한)	27	13.83 (3.15)	107	13.52 (2.75)	.52	25	12.74 (3.70)	254	12.44 (2.68)	.40
로그소득	27	5.94 (.42)	106	5.76 (.58)	1.46	25	5.63 (.53)	253	5.48 (.53)	1.40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27	.63 (.49)	107	.35 (.48)	3.74**	25	.56 (.51)	255	.22 (.42)	3.22**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28	.04 (.19)	111	.09 (.29)	-1.21	25	.64 (.49)	256	.34 (.47)	3.06**
대학소재지 (수도권=1)	28	-	111	-		25	-	257	-	
대학전공 (인문사회=1)	28	.29 (.46)	111	.64 (.48)	-3.50**	25	.12 (.33)	257	.54 (.50)	-5.69***
구직실패경험 (실패=1)	13	.31 (.48)	95	.66 (.48)	-2.53*	7	.43 (.53)	184	.49 (.50)	-.31
학자금대출 (대출=1)	28	.21 (.42)	111	.32 (.47)	-1.21	25	.40 (.50)	256	.32 (.47)	.77
졸업학점 (100점 만점)	27	84.09 (8.94)	104	81.82 (8.00)	1.28	24	80.17 (17.82)	221	80.95 (9.60)	-.34
졸업 당시 실업률(%)	28	6.97 (.65)	111	6.89 (.73)	.56	25	6.42 (.72)	257	6.43 (.65)	-.06

*p<.05, **p<.01, ***p<.001

2.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 <표 8>, <표 9>와 같다. 우선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의 좌측과 같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에 진학시키겠다고 희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원 진학 확률의 오즈가 364.3%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비해 오즈가 299.7% 높았다. 더불어 인문사회계 학생이 이공계 학생보다 대학원에 진학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즈비=.225).

이어서 성별, 전공, 대학 소재지별 하위 표본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8>의 우측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부모가 대학원에 진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학원 진학 확률의 오즈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767.1%와 277.4%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공계열을 전공한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즈가 583.9%와 245.8% 높았으며, 인문사회계를 전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오즈가 .067과 .285에 불과하였다. 특이하게 남학생들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원제 진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들 사이에는 소득이 대학원 진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전체 및 성별에 따른 대학원 진학 요인 결정 분석

	전체			성별					
				남자			여자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남=1)	.486	.378	1.627						
부모학력 (교육연한)	-.051	.066	.950	-.172	.128	.842	.012	.084	1.012
가구소득	.405	.353	1.499	1.392†	.744	4.023	.062	.423	1.064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1.293***	.362	3.643	2.037**	.779	7.671	1.020**	.428	2.774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469	.405	1.598	.597	.723	1.816	.460	.515	1.584
대학소재지 (수도권=1)	1.098**	.394	2.997	1.765**	.834	5.839	.899†	.481	2.458
대학전공 (인문사회=1)	-1.492***	.402	.225	-2.696**	1.272	.067	-1.257**	.435	.285
졸업학점 (100점 만점)	.005	.019	1.005	.002	.037	1.002	.002	.022	1.002
졸업 당시 실업률(%)	.020	.264	1.020	.441	.831	1.555	.004	.297	1.004
상수	-4.726**	2.962	.009	-11.435***	7.943	.000	-3.081**	3.374	.046
사례수	365			88			277		

†p<.05, *p<.05, **p<.01, ***p<.001

<표 9>의 좌측에는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분석 변수 중 어떤 변수도 대학원 진학 확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공계열 졸업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학원 진학확률의 오즈가 477.8% 높았으며,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즈가 295.4% 높았다.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별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9>의 우측과 같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으며(오즈비 4.896),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인문사회계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비해 대학원제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인문사회계 오즈비 .277).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성별이나 대학전공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대학원 진학포부가 대학원 진학에 정적인 상관을 가졌으며(오즈비 442.8%), 국공립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사립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비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의 오즈가 256.8% 높았다.

〈표 9〉 전공 및 대학소재지에 따른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 분석

	전공						소재지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수도권			비수도권		
	B	SE	OR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남=1)	-.049	1.200	.953	.568	.420	1.765	1.588**	.707	4.896	.198	.515	1.219
부모학력 (교육연한)	.112	.130	1.119	-.101	.080	.904	.002	.098	1.002	-.104	.094	.901
가구소득	.636	.735	1.889	.362	.419	1.436	.187	.555	1.205	.592	.500	1.808
대학원 진학포부 (포부=1)	.513	.720	1.670	1.564***	.435	4.776	.868	.590	2.382	1.488**	.509	4.428
대학설립유형 (국공립=1)	-.249	1.172	.780	.502	.459	1.651	-1.686	1.208	.185	.943*	.496	2.568
대학소재지 (수도권=1)	1.178	.801	3.249	1.083*	.474	2.954						
대학전공 (인문사회=1)							-1.284**	.564	.277	-1.805**	.668	.164
졸업학점 (100점 만점)	.021	.039	1.021	.000	.021	1.000	.036	.034	1.037	-.014	.021	.986
졸업 당시 실업률(%)	.019	.434	1.019	-.024	.356	.976	.551	.408	1.736	-.449	.414	.638
상수	-10.548	6.079	.000	-3.267	3.461	.038	-9.286**	4.641	.000	-.714	4.082	.490
사례수	182			183			124			241		

†p<.10 *p<.05, **p<.01, ***p<.001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등학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423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대한 로직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과 학력과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제 상황을 변수에 포함하여 대학원 진학 결정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원 진학 이상의 부모 교육포부 수준, 대학 소재지, 전공계열에 따라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 이상 진학시키겠다는 교육포부 수준을 가진 대학 졸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6배,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해 3배 정도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전공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은 이공계열 졸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학, 생물학, 컴퓨터공학, 수학전공 등 이공계열 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Bedard & Herman(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하위 표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남녀 모두 부모가 자녀를 대학원에 진학시키고자 희망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공계열을 전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원 진학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변수도 대학원 진학 확률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이공계열 졸업자는 부모의 희망교육 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학원 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이공계 학과 졸업자가 인문사회계 학과 졸업자 보다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성별이나 대학전공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의 자녀 교육포부 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리고 국공립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사립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비해 대학원에 진학할 확률이 높았다.

한편, 부모학력, 가구소득, 실업률, 학점은 전체 표본과 하위 표본 분석 모두에서 대학원 진학 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이영민, 임정연, 2011) 그리고 학점이 높을수록 대학원 진학률이 높다는(Bedard & Herman, 2008) 기존 연구들과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는 대학 진학 및 대학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4년제 대학졸업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고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분석 표본에 선택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사례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다수일 수밖에 없다. 재학 중 입대한 남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재학 중 입학할 경우 최소 5.5년 이상, 평균 6년 정도 소요된다. 대학 입학 시 재수를 하거나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고교 졸업 후 대학원 진학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사례들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되었을 경우가 많다. 조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원을 진학하는 사례도 여러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을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대학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와 노동시장 진입 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와 특수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한 대학이나 전공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와 다른 대학이나 전공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를 것이다. 다만 이렇게 세부적인 분석이 불가능했던 것은 분석 사례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세부 항목별 분석의 일부는 분석사례가 적어 분석 결과가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례수가 늘어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의미있는 분석 결과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생을 조사하는 보정패널이 추가되면 이에 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SM 2011~1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DB연계 취업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SM 2012~03.

김형만(2002). 전문대학·대학 졸업생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민, 임정연(2011). 4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33~258.

오창환, 정철영(2009).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대학원 진학 선택 결정 요인. 한국농업교육학회논집, 41(4), 199~218.

진미석(2006). 석사학위소지자들의 진로경로와 학위효용가치 인식을 통해 본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능. 한국교육학연구, 44(2), 135~159.

진미석, 김나라, 윤형한(2006). 2006년 미래의 직업세계: 대학원 석박사 재학생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2007). 청년패널 종합분석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Becker, G. S.(1975).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2n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edard, K., & Herman, D. A. (2008). Who goes to graduate/professional school? The importance of economic fluctuations, undergraduate field, and ability.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7(2), 197~210.

Blaug, M.(1976). The empirical state of human capital theory: A slightly jaundice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4(3), 827~855.

Brighouse, H., & Swift, A.(2006). Equality, Priority, and Positional Goods. *Ethics, 116*(3), 471~497.

Carlsson, F., Johansson-Stenman, O., & Martinsson, P.(2007). Do you enjoy having more than others? Survey evidence of positional goods. *Economica, 74*(296), 586~598.

Dellas, H., & Koubi, V.(2003). Business cycles and schooling.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4), 843~859.

Eide, E. & Waehrer, G.(1998). The Role of the Option Value of College Attendance in College Major Choic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1), 73~82.

Marginson, S.(2006). Dynamics of national and global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2(1), 1~39.

Mincer, J.(1970). The distribution of labor incomes: A surve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human capital approa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8(1), 1~26.

Mullen, A. L., Goyette, K. A., & Soares, J. A.(2003). Who goes to graduate school? Soci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educational continuation after college. *Sociology of Education*, 76(2), 143~169.

Perna, L. W.(2004). Understanding the decision to enroll in graduate school: Sex and racial/ethnic group difference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5(5), 487~527.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4-year college graduate’s decision to graduate schools

Cha, Sung-Hyun(KEDI), Min, Byeongcheol(SNU), Eom, Moonyoung(KEDI)

This study aimed to examines factors that affect 4-year college graduate' decision to graduate schools. The study conduct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panel data of 423 college graduates, using the High School Student Cohort of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s aspiration that their children go to graduate schools, college location, and major was associated with likelihood of entrance to graduate schools. College graduates who had parent's educational aspiration of graduate level and who was graduated from college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tend to have 3.6 times and 3.0 times higher than their counterparts, respectively. In addition, college graduates who majored in liberal arts and social science was less likely to enter to graduate schools than those in science and engineering. However, household income, unemployment rate, and GPA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college graudate's decision to entrance of graduate schools.

Key words: KEEP, 4-year college graduate, entrance to graduate schools, logistic regression